

# 한성대신문

1976년 12월 15일 창간

www.hansungnews.com

2024년 3월 4일 월요일 제597호

지면안내

04

사회  
외면받는 사회복지요원, 대책 마련 시급

05

기획  
시 프로필 속으로

06

학술  
습관도 성격도 아닌 '만성질환', 성인 ADHD

08

광고  
제56기 수습기자 모집

## 교필 학점 줄이고 선택필교 학점 늘린다

### 교양이수체계 개편... 상상력교양대학 “학생의 교양과목 선택권 확충을 위한 조치”

2024학년도부터 교양이수체계가 개편된다. 이번 개편을 통해 일부 교양필수 과목이 선택필수교양으로 변경되거나, 기존 교양필수 과목의 교육과정 변동, 교양필수 과목 신설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또한 선택필수 교양의 영역명 변경과 일부 선택필수교양 과목의 영역 이동, 선택필수교양 최소 이수 학점 증가 등도 함께 진행됐다. 상상력교양대학은 학생의 교양과목 선택권을 강화하고 교양과목 이수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 교양이수체계를 개편했다고 밝혔다.

기존 교양필수 과목이었던 ▲글로벌 시민의식 및 사회봉사 ▲디자인씽킹 ▲삶과 꿈의 선택필수교양으로 변경됐다. 세 과목 모두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과목이었으나, 학생이 원하는 경우 수강할 수 있게 됐다.

‘사고와 표현(읽기와 쓰기)’, ‘사고와 표현(발표와 토론)’은 ‘사고와 표현’으로 통합했다. 기존에는 2학점 두 과목을 2개 학기에 걸쳐 수강해야 했으나, 24학년부터는 3학점 강좌인 ‘사고와 표현’만 수강하면 된다.

2학점 강의 ‘문제 해결을 위한 코딩 첫 걸음’은 기존 교육과정에 새로운 내용을 추가해 3학점인 ‘AI와 SW기초’로 변경됐다. 기존에는 코딩과 소프트웨어 등을 배우는 과목이었으나, 인공지능(AI) 기술 및 최신 동향 등의 내용을 함께 학습하게 된다.

교양필수 과목으로 ‘한성 이마기나스’가 신설됐다. ‘한성 이마기나스’는 학생의 창의적 사고력과 상상력을 함양하기 위해 신설된 과목이다. 예술·인문학·사회과학 등 각 영역에서 상상력을 어떻게 발휘할 수 있는지 등을 학습하고, 학생들이 각자의 상상을 실행하고 발표하는 등의 과정을 포함한다.

이 같은 교양필수 과목의 변동으로 인해, 19~23학번은 입학 시와 다른 필수 이수 체계가 적용된다. 먼저 기존에 수강한 ▲글로벌 시민의식 및 사회봉사 ▲디자인씽킹 ▲삶과 꿈의 학점은 선택필수교양의 학점으로 인정된다.

또한 ‘사고와 표현(읽기와 쓰기)’, ‘사고와 표현(발표와 토론)’, 통합된 ‘사고와 표현’ 중 한 과목만 수강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코딩 첫 걸음’과 ‘AI와 SW기초’ 중에서도 한 과목만 수강하면 된다. 이번 개편에서 변동 사항이 없는 ‘영어커뮤니케이션 독해·작문’과 ‘영어커뮤니케이션 청취·회화’는 두 과목 모두 수강해야 하며, 신설된 ‘한성 이마기나스’는 이수하지 않아도 된다.

24학년부터는 개편·신설된 교양필수 이수 체계에 따라 수강해야 한다. ▲사고와 표현 ▲AI와 SW기초 ▲한성 이마기나스 ▲영어커뮤니케이션 독해·작문 ▲영어커뮤니케이션 청취·회화를 수강하면 된다.

상상력교양대학 상상교양연구소는 교양필수 과목의 개수를 줄여 학생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교육 선택권을 늘리는 것이 이번 개편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상상교양연구소가 작년 6월 재학생 480명을 대상으로 교양 교육과정의 문제점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58.8%(282명)가 ‘자율적으로 선택해서 이수할 수 있는 학점이 부족하다’고 응답했다. 또한 52.7%(253명)는 ‘필수교과목 수가 많다’는 답변을 남겼다. 윤지윤(상상력교양대학 상상교양연구소) 연구교수는 “글쓰기와 AI·SW 교육 등 필수적이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과목을 더욱 강화하고, ‘디자인씽킹’ 등의 과목은 필요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구성하는 것이 수업 효과가 더욱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사고와 표현’을 3학점 단일 과목으로 통합한 것 또한 학생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또한 상상교양연구소는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 분야 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기에, ‘문제 해결을 위한 코딩 첫 걸음’을 ‘AI와 SW기초’로 강화한 것이라고도 전



▲2024 상상력교양대학 동계 워크숍에서 교수진이 교양이수체계 개편 발표를 듣고 있다.

했다. 윤 연구교수는 “문제 해결을 위한 코딩 첫 걸음”은 소프트웨어를 중심에 둔, 문제 해결 과정에서의 학습을 중요시하는 과목이었다”며 “인공지능에 대한 보편적 이해라는 목표를 기반으로, 인공지능의 개념과 동작 원리, 최신 동향 등을 학습할 수 있도록 과목을 재구성했다”고 설명했다.

‘한성 이마기나스’는 학생들의 창의력과 상상력을 함양함으로써, 본교가 추구하는 핵심 역량인 ▲창의융합역량 ▲공동체역량 ▲글로벌역량을 갖춘 인재 육성을 위해 신설됐다. 윤 연구교수는 “본교가 추구하는 핵심 역량 함양을 위해 상상력에 기반한 교양필수 교과목인 ‘한성 이마기나스’를 개발하게 됐다”고 전했다.

한편 선택필수교양 또한 개편의 대상이 됐다. 먼저 선택필수교양의 영역명이 기존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및 정보기술 ▲융합교양 ▲예술과 체육에서 ▲인문학적 상상력 ▲사회과학적 상상력 ▲과학기술 상상력 ▲융합적 상상력 ▲예술과 스포츠 상상력으로 변경됐다. 윤 연구교수는 “‘한성 이마기나스’ 신설 이후 학생들 스

스로 선택한 각 영역에서 상상력을 키워나가는 의미로 명칭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미술의 이해와 감상 ▲영화로 보는 패션 ▲대학수학 I 등 47개의 선택필수교양 과목은 각 과목 교수자의 의견으로 영역이 이동했다. 상상력교양대학은 추후 영역 구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교양 교육과정에서 학생의 선택권을 늘리기 위해 선택필수교양의 이수학점은 늘어난다. 19~23학번은 최소 4개 영역에서 한 과목씩, 12학점의 선택필수교양을 수강해야 했으나 최소 3개 영역에서 한 과목씩, 총 17~20학점을 이수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24학번은 최소 4개 영역에서 한 과목씩, 15학점의 선택필수교양을 이수해야 한다. 윤 연구교수는 “학생들이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교양 과목의 수가 많아 부담이 됐고, 선택적으로 들을 수 있는 과목 수가 줄어드는 것이 아쉽다는 의견을 접해왔다”며 “교육 선택권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선택필수교양 이수학점을 늘렸다”고 설명했다.

황서연 기자 hsy040623@gmail.com

## 이창원 총장, 새 임기 시작

이창원 제11대 총장의 임기가 지난 2월 1일부터 시작됐다. 이 총장은 2028년 1월 31일까지 4년간 총장직을 수행할 예정이다. 1992년부터 본교 교수로 재직하던 이 총장은 ▲기획협력처장 ▲산학협력단장 ▲교무처장 등의 보직을 맡은 바 있다. 지난 2020년 2월 1일부터 제10대 총장을 역임한 그는 본교가 종합대학으로 승격한 이후 첫 연임 총장이다.

한편 제11대 총장 취임식은 오는 3월 14일에 치러질 예정이다. 비서팀은 학내 구성원이 취임식에 편히 참석할 수 있도록 개강 이후에 취임식을 진행하기로 정했다고 밝혔다.

본지가 새 임기를 맡은 이 총장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 총장은 “본교가 서울의 중심으로 더욱 뻗어나가고 글로벌 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느라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며 최근 총장으로서 어떤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설명했다. 또한 “지난 4년간 본교가 달성해온 ‘소통과 혁신’의 성과를 발판 삼아, 앞으로의 4년 동안 본교가 서울의 중심을 넘어 세계에서 우뚝 서는 대학으로 자리 잡도록 구성원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취임의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 3면에 계속

정성혁 기자 normalhyeok0927@hansung.ac.kr



▲ 이창원 제11대 총장

## 한성대신문 독자칼럼 모집

### 낙산에 올라 소리치는 당신의 생각

지원자격 | 한성대학교 재학생

주제 | 자유 주제

분량 | 제목 제외, 공백 포함 약 1,100자 (200자 원고지 기준 5.5매)

혜택 | 비교과 포인트 10pt 지급  
칼럼이 신문에 게재될 시 소정의 원고료 지급

모집기간 | 상시 모집

접수방법 | 한글 프로그램으로 칼럼을 작성하여

hansungnews@gmail.com으로 제출

\*제출 시 칼럼제목/이름/학과 및 제1트랙/학년/연락처/계좌번호 함께 기재

문의 | 한성대신문사 02)760-4186

카카오톡채널 @hansungnews

인스타그램 @hansungnews

# 한성의 막을 내리며, 막을 올리며



▲새터 1일차 저녁, 동아리 공연을 관람하는 학생들



▲'다이나믹 듀오'의 개코가 랩을 선보인다.



▲무대를 펼치는 '다이나믹 듀오'의 최자



▲22일 개최된 오티에서 각 조의 조장이 무대에 올라 게임을 즐긴다.



▲지난 19일, 오티에서 축하공연을 진행하는 무용학과 학우들



▲많은 신입생이 트랙 탐방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 꿈을 향한 노력의 결실

'2023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이 지난 16일 낙산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행사에는 문동후 학교법인 한성학원 이사장, 이창원 총장, 장병희 교학부총장 등 교내 인사와 학위수여자가 참석했다.

이번 학위수여식에서는 학부 992명, 석사 37명, 박사 31명, 디자인아트교육원 97명 등 총 1,157명이 학위를 취득했다. 학부에서는 ▲우촌상 1명 ▲이사장상 1명 ▲성적우수상 54명 ▲트랙/학과추천 공로상 77명 ▲특별공로상 16명 ▲한성인재인증 1명 ▲총동문회장상 1명 ▲기업은행장상 1명 ▲우리은행장상 1명 등 총 153명이 수상했다. 대학원에서는 ▲최우수논문상 4명 ▲우수논문상 9명 ▲성적우수상 12명 ▲특별공로상 2명 ▲공로상 23명 ▲대학원총동문회장상 2명으로, 총 52명의 수상자가 있었다. 디자인아트교육원에서는 ▲학사학위과정 성적최우수상 1명에게 수상이 이뤄졌다.

졸업자 중 학업성적이 최우수한 자에게 주어지는 우촌상을 수상한 정인성(사회학 4) 졸업생은 "맨 앞자리에 앉아 강의를 수강하고 모르는 부분에 대해 교수님께 질문을 많이 했다"며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좌절하지 말고 과감하게 도전해 후회 없는 대학생활을 보내기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 대학생활의 문을 열다

'2024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하 오티)'이 지난 19·21·22일에 진행됐다. 온·오프라인에서 함께 실시된 이번 오티는 신입생의 본교에 대한 소속감을 높이고 대학생활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개최됐다.

19일에 크리에이티브인문예술대학과 미래융합사회과학대학 신입생, 21일에 디자인대학과 창의융합대학 신입생, 22일에 IT공과대학과 미래플러스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오티를 진행했다. 낙산관 대강당에서 ▲개식사 및 환영회 ▲축하공연 및 축하영상 ▲대학생활 안내 등을 진행한 후, ▲트랙별 설명회 ▲캠퍼스 투어 및 단대별 시간 등의 행사를 이어갔다.

한편 온라인 오티는 2월 19일부터 3월 10일까지 본교 e-class에서 참여할 수 있다. 온라인 오티에서 대학생활 안내, 트랙 설명회 등을 참여한 학생에게는 비교과 포인트 최대 40pt가 지급된다.

오티에 참여한 최관우(인문 1) 학생은 "트랙제에 대해 잘 알지 못했는데 오티를 통해 자세히 알 수 있었다"며 "트랙 설명회에서 실제로 그 트랙에 몸 담고 있는 분들과 수업을 듣는 선배님들의 경험을 들을 수 있어 좋았다"고 전했다. 또한, 주은영(사회과학 1) 학생은 "대학생활의 전반적인 부분을 파악할 수 있어 유익했다"고 말했다.

### 새내기를 반기는 성대한 환영식

2024년 '새내기 새로 배움터(이하 새터)'가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2박 3일간 강원도 평창군의 '알펜시아' 리조트에서 개최됐다. 새터에는 ▲크리에이티브인문예술대학 ▲미래융합사회과학대학 ▲디자인대학 ▲IT공과대학 ▲창의융합대학 등이 참여했다.

새터 1일차에는 ▲개회식 및 안전교육 ▲학생자치기구 소개 ▲동아리 공연 등의 행사가 진행됐다. ▲왕산악 ▲들불 ▲탈패 ▲낙산극회 ▲TRIAx ▲NOD ▲4호선마이크 등의 정동아리가 다양한 공연을 선보였다.

2일차에는 ▲단과대학별 프로그램 및 레크레이션 ▲총장님 인사말 ▲응원전 및 장기자랑 등이 진행됐으며, 초청 가수 '다이나믹 듀오'의 공연이 마지막 순서로 이어졌다.

새터에 참여한 송은교(문문 1) 학생은 "단과대학 응원전 연습을 하며 친구들과 더 빨리 친해질 수 있어서 새터에 온 보람을 느꼈다"고 전했다. 이어 이승지(문문 1) 학생은 "단과대학 레크레이션을 통해 선배, 동기들과 친해졌다"며 "선배, 동기들과 좋은 추억을 쌓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유성 기자 meteor11@hansung.ac.kr  
황서연 기자 hsy040623@gmail.com  
권수연 기자 tndusk03@gmail.com



▲학위수여자가 이창원 총장으로부터 학위증을 받기 위해 서있다.

# “세계적 대학으로 도약하도록 노력 아끼지 않을 것”

## 이창원 제11대 총장 인터뷰

Q. 방학이 끝날 무렵인데, 최근에는 어떤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가?

이창원 총장(이하 이) : ‘글로벌 디지털 인재양성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음을 지난 2월 20일 열린 학사협의회에서 발표했다. ‘글로벌 디지털 인재양성 플랫폼’은 지역·산업·대학·연구 협력과 글로벌 협력을 연계한 교육,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의 전교적 확산과 지역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인재양성 지원 플랫폼이다. 이 플랫폼을 통해 지역정주형 인재를 양성하고, 지·산·학·연 협력 생태계 구축 등을 목표로 하는 정부의 정책과 연계해 본교의 경쟁력을 몇 단계 끌어올리고자 노력하고 있다.

Q. 개강을 앞두고 학생들의 관심사는 교양이수체계의 개편으로 모이고 있다. 이번 개편의 목적과 방향성은 무엇인가?

이 : 교양이수체계 개편에 학생들의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안다. 이번 개편의 목적은 ‘상상력’을 핵심 키워드로 다양한 교양 교과목 간의 융합을 강화하고, 본교만의 차별화된 교양교육 ‘한성 이마기안스’를 통해 교육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학생들이 반드시 들어야 하는 교양필수 교과목을 축소해 필수학점 이수에 대한 부담을 낮추고, 배분이수 과목과 자율 선택과목을 보다 다양화해 학생선택권을 더욱 확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교양이수체계 개편을 통해 전공-교양 간의 벽을 허무는 융합적 교양교육을 강화할 뿐 아니라, 학생들의 진로 및 전공탐색 기회를 확대해 교육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Q. 최근에는 새로운 처와 센터를 만드는 등 대학본부 조직개편도 이뤄진 것으로 확인했다. 새롭게 출범하는 부처가 맡을 업무와 조직개편을 통해 기대하는 효과는 무엇인가?

이 : 대학본부는 지난 1월 교무위원회와 2월 이사회 의결 과정을 거쳐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이번 조직개편의 핵심은 글로벌-지역사회 협력 기능 강화를 위한 ‘글로벌 캠퍼스협력처’ 신설과 학생들의 진로·취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및 ‘지역청년고용팀’ 신설이다. 기존 대외협력처와 국제교류원의 기능을 통합한 글로벌협력처는 본교가 지역 혁신의 중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지역 활성화를 지원하는 업무를 맡는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최근 선정



▲지난 28일, 본지와 인터뷰하는 이창원 총장

된 고용노동부 사업을 전담하는 조직으로, 재학·졸업생, 지역청년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지원함으로써 취업률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Q. 본교의 종합대학 승격 이후 첫 연임 총장이다. 지난 4년간 총장의 업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가 무엇이라고 느꼈는지, 앞으로는 어떤 노력을 기울일 예정인지 궁금하다.

이 : 총장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은 대학의 모든 구성원에게 본교가 나아가야 할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역량과 자원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또한 총장은 대학의 핵심 기능인 교육·연구를 통해 인재를 배출하고 변화를 선도해 나가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이를 위해 총장은 대학 구성원의 요구를 파악해야 하고, 내·외부 구성원과 끊임없이 소통해야 한다. 지난 4년간 재임하면서 이 같은 역할을 마음에 새기고, 구성원과 소통하고 목표를 공유해 본

교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 앞으로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의 발전으로 인한 고등교육의 변화를 직시하고 이를 발판 삼아 학생 성공의 새 장을 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Q. 제10대 총장으로 취임했을 때, ‘소통으로 여는 혁신, 혁신으로 여는 내일’이라는 슬로건을 표방했다. 새로운 4년을 위해 새롭게 내걸고자 하는 슬로건이 있는가?

이 : ‘세계로 뻗어나가는 한성, 한성으로 모여드는 세계’를 새로운 4년을 위한 슬로건으로 표방하고자 한다. 본교는 세계의 중심에서 고등교육 인재양성 혁신을 선도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본교가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져 세계의 인재가 한성으로 모여들 수 있도록, 학내 구성원과 함께 비전과 목표를 공유하고 싶다.

Q. 지금 본교가 직면한 어려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이를 타개하기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알고 싶다.

이 :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모든 대학이 위기를 겪고 있다. 외국인 유학생 전담 학부인 글로벌인재학부 신설과 인공지능 활용 교육의 확산 등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을 통해 본교가 직면한 위기를 기회로 삼아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것이다.

Q. ‘오고 싶은 한성대, 머물고 싶은 한성대’를 만들기 위해서도 노력해 왔다. ‘오고 싶은 한성대, 머물고 싶은 한성대’란 무엇인지, 이를 위해 충족해야 할 조건은 무엇이 있을지 궁금하다.

이 : 강의, 온·오프라인 교육환경, 행정서비스 등 학교생활 전 영역에 걸쳐 학생의 만족도를 향상시킴으로써 학생들이 오고 싶은 대학, 또 캠퍼스에서 머물고 싶은 대학으로 만드는 것이 ‘오고 싶은 한성대, 머물고 싶은 한성대’의 핵심 내용이다. 이제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지역과 함께하고 세계로 나아가는 대학을 만들기 위해, 본교가 지역 혁신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 이를 통해 지역의 인재, 세계의 인재

가 한성에 모일 수 있도록, 지역·산업 그리고 글로벌 대학 및 기관과 적극적인 협력을 추진할 것이다.

Q. 트랙제가 기반이 되는 학사구조 하에서 여러 특성화학과와 계약학과를 신설했다. 학과와 트랙이 조화를 이루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일 예정인가?

이 : 본교의 특성화학과 재학생은 타 단과대학의 트랙을 제2트랙으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트랙 학생도 특성화학과와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게 함으로써 트랙과 특성화학과 간 조화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트랙-특성화학과 간 전공상호학점 인정을 확대하고 융합전공 교육과정을 확대함으로써, 트랙과 특성화학과 간 조화는 물론 교육 역량의 전반적인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Q. 학내 구성원과 소통하고, 구성원이 운영에 참여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안다. 구성원의 참여와 소통을 중요시하는 까닭이 무엇인가?

이 : 우리나라 대부분의 대학은 학령인구 급감, 지방소멸, 등록금 동결로 인한 재정난 등의 위기를 겪고 있다. 또한 생성형 인공지능 등의 등장으로 촉발된 기술혁명은 대학에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지향하는 가치와 인식에 대한 공감, 즉 소통이 필수적이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기회를 잘 활용하기 위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소통’이다. ‘소통을 통한 혁신’은 필수적인 가치라고 생각한다.

Q. 마지막으로, 본교 구성원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

이 : 본교는 이제 서울을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 글로벌 대학으로 우뚝 설 준비를 해 나가야 할 시점이다. 본교가 세계적인 대학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구성원 모두가 뜻과 힘을 모아 주기를 바란다. 우리는 이제 외연을 확대함과 동시에 글로벌 혁신의 핵심 주체로서 그 위상을 높여갈 것이다. 세계의 인재가 한성으로 모이고 한성의 인재가 세계로 진출하는 새로운 시대를 향해 함께 힘차게 나아가자.

정상혁 기자 normalhyeok0927@hansung.ac.kr

02876,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 한성대신문사



# 제보하기

**학생의 권리를 앞장서 대변하겠습니다**

Tel : 02)760-4186

Fax : 02)760-4389

E-mail : hansungnews@gmail.com

KakaoTalk : @hansungnews

Instagram : @hansungne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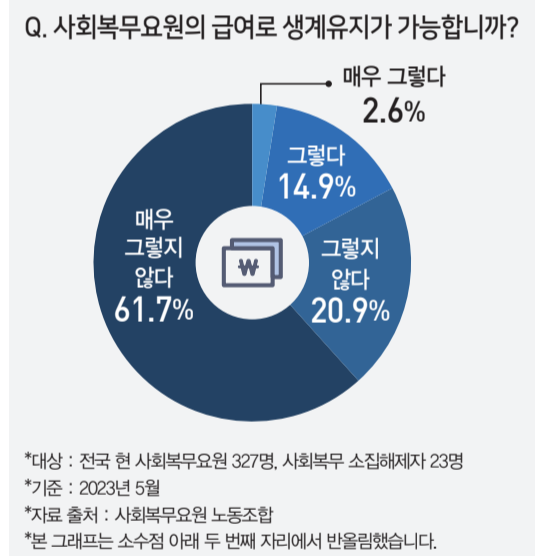
# 외면받는 사회복지무요원, 대책 마련 시급

사회복지무요원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 사회복지무요원 제도는 병역판정 신체검사 결과 '보충역'으로 판정된 이들이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에서 사회복지, 보건 의료 등 사회서비스 업무 전반을 수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정부가 지난 2007년 병역의무의 형평성 제고와 부족한 사회서비스 인력 공급을 목적으로 만들었다. 기존에는 ▲의무경찰 ▲경비교도 ▲의무소방 등의 대체복무 형태로 복무했지만, 군사입무 수행이 불가능한 이들을 노인·장애인 수발 등 사회적으로 필요하지만 공급이 어려운 분야에 사회복지무요원으로 투입한다. 사회복지무요원의 복무기간은 21개월이며 대체로 자가 숙식, 출·퇴근 근무를 한다. 급여 또한 현역병과 동일하게 받으며 교통비와 하루 7천 원 상당의 식비도 제공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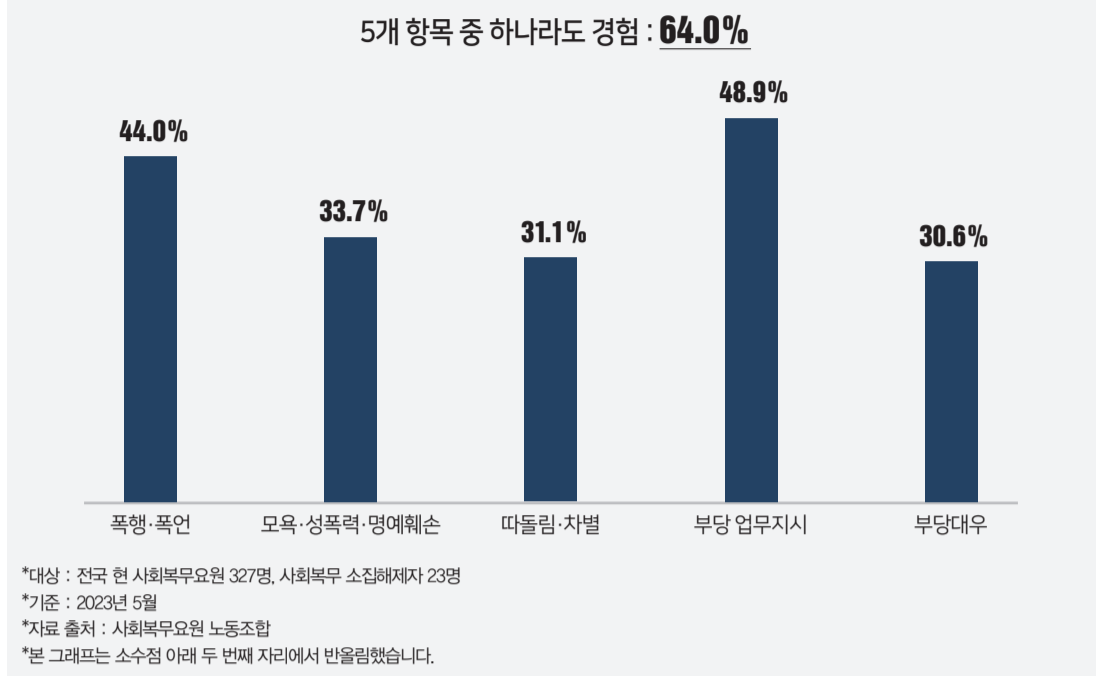
복무 기간 동안 부대 내에서만 상주하는 현역병과 달리 사회복지무요원은 자가에서 출·퇴근하고 현역병에 비해 낮은 신체검사 등급을 받은 이들이 복무하기 때문에 노동강도가 약하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그러나 사회복지무요원 또한 현역병 못지않게 노동강도가 높은 근무지에 배치되기도 한다. 사회복지무요원 노동조합이 '사회복지무요원 350명 복무환경 실태조사 발표회'를 통해 알린 사례에 따르면 어개가 탈락되는 질환으로 인해 4급 판정을 받은 이에게 무거운 짐을 들도록 시키거나 지하철역에서 근무하는 이에게 스크린더어 수리를 지시하고 선로에 떨어진 물건을 줍게 하는 등 각종 위험에 노출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현역병의 급여를 2025년 150만 원까지 올릴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현역병의 급여가 오르다 보니 사회복지무요원의 급여도 덩달아 오른다. 하지만 현역병의 급여를 병무청에서 지급하는 데 비해 사회복지무요원의 급여는 복무하는 기관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무요원 선발을 하지 않는 등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지

## 사회복지무요원 복무 중 생계유지에 대한 응답



## 사회복지무요원 복무 중 괴롭힘 노출 경험에 관한 응답



난해 서울특별시 4개 자치구에서 2024년에는 행정 분야 사회복지무요원을 선발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내놓은 바 있다. 해당 구청들은 사회복지무요원 인력 감축의 가장 큰 이유로 '재정 부담'을 꼽았다.

지자체에서 사회복지무요원 선발 인원을 줄이면 복무를 희망하는 청년들의 복무 대기 기간은 길어질 수밖에 없다. 사회복지무요원 복무 신청이 매년 1회밖에 시행되지 않는 탓에 청년들은 복무 신청에서 탈락할 경우 장기적 계획 수립이 불가하다. 탈락 횟수가 많을수록 합격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20대 중반에 접어들 후 사회복지무요원 복무를 시작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오는 8월부터 사회복지무요원 복무를 시작할 예정인 손윤재(23) 씨는 "복무 대기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 해외 유학과 같은 장기간 활동을 준비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었다"고 전했다.

장기간의 대기 기간을 거친 후 복무를 시작한 사회복지무요원은 '재정난'이라는 또 다른 어려움에 봉착한다. 사회복지무요원은 현역병과 유사한 수준의 급여를 받지만, 면세가로 물품 구매가 가능한 현역병과 달리 사회에서 물품을 구매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난에 쉽게 노출된다. 2024년 기준 병장 월급은 125만 원으로, 2024년 최저생계비가 약 133만 원인 것과 비교했을 때 부족하다. 실제로 지난해 사회복지무요원 노동조합에서 시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사회복지무요원의 급여로 생계유지가 가능합니까?'라는 질문에 61.7%의 응답자가 '매우 그렇지 않다'라고 답했다. 하은성(사회복지무요원 노동조합) 위원장은 "사회복지무요원 중에서도 주거비를 스스로 부담하거나 채무를 갚아야 하는 경우들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재정난을 탈피하기 위해 검직을 희망하는 사

회복지무요원도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 『사회복지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28조에서 사회복지무요원의 검직은 본인 또는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을 복무기관장이 판단해 검직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하 위원장은 "사회복지무요원의 검직 여부를 복무기관장의 재량에 맡기다 보니 기관장의 부당업무지시를 수용하는 등의 사례가 제보된다"고 말했다.

대다수가 출·퇴근제로 근무하는 사회복지무요원은 현역병에 비해 편한 환경에서 병역의 의무를 다한다는 인식이 팽배하지만, 이들 또한 고강도 노동에 노출된다. 강은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사회복지무요원이 '값싼 노동력'으로 인식되다 보니 인력이 부족한 기관에서는 배치표와 무관하게 주요 업무들을 사회복지무요원에게 지시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또한 하 위원장은 "허리나 어깨 등 근골격계 질환이 있는데도 무거운 것을 들게 하거나, 우울증 및 대인기피증이 있는데도 민원 업무를 수행하는 등 적성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기존의 질병이 악화하는 경우도 존재한다"고 밝혔다.

사회복지무요원은 고강도 업무환경에 종사할 뿐만 아니라 복무 중 괴롭힘에 노출되기도 한다. 사회복지무요원 노동조합에서 시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귀하는 복무 기간 동안 괴롭힘 행위에 대해 경험해본 적이 있었습니까?'라는 질문에 64%가 복무 중 괴롭힘에 노출됐다고 답했다. 괴롭힘의 종류는 ▲폭행·폭언 ▲모욕·성폭력·명예훼손 ▲부당 업무지시 등이 있었다. 하 위원장은 "위험한 업무를 2인 1조가 아닌 사회복지무요원 혼자서 하도록 하는 등의 부당업무 지시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사회복지무요원은 현역병과 달리 지자체나 복지시설 등에서 근무함에도,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는 과정이라는 이유로 노동자로서 법적 지위가 보장되지 않는다. 『사회복지무요원 복무관리 규정』에서 사회복지무요원은 공의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으로서 직무상 행위는 공무수행으로 본다'고 정의한다. 대부분 복무기관의 노동자와 똑같은 환경에서 일하지만, 적용받는 법은 다른 것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에서 사업주는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무요원이 적용받는 『병역법』과 『사회복지무요원 복무관리 규정』에는 사회복지무요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법률 조항은 부재하다. 강 변호사는 "사회복지무요원은 대부분 복무기관의 노동자와 혼재돼 일하기 때문에 노동자가 노출될 수 있는 여러 위험에 똑같이 노출된다"고 경고했다.

사회복지무요원들은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검직 허가라고 입을 모은다. 근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의 검직 허가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또한 현재는 검직 허가가 복무기관장의 재량이다 보니 복무기관장의 부당 업무 지시 등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검직 여부를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운영해달라는 의견도 제기된다. 하 위원장은 "사회복지무요원의 검직 여부를 신고제로 운영하고 검직이 복무에 영향을 미칠 때 경고 처분을 하도록 규정한다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병역판정 신체검사에서 4급을 받은 사회복지무요원은 현역병과 비교했을 때 신체·정신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고강도의 노동환경에 노출돼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특히 4급 판정에 영향을 미친 질병을 고려해 그에 맞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배치해야 한다고도 지적된다. 하 위원장은 "사회복지무요원 본인의 질병을 고려한 업무 배치는 질병 발생 및 악화를 예방할 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인력 활용에도 효과적"이라고 전했다.

지자체 등 국가기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무요원을 노동자와 같은 법률로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사회에서 숙식하며 출·퇴근 하는 근무형태가 기관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사회복지무요원을 법적 노동자로 인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사회복지무요원 복무관리 규정』에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에 준하는 조항들을 추가하는 방안이 거론되기도 한다. 강 변호사는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들은 사회복지무요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도 사회복지무요원이 편한 근무환경에 놓여 있다는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해결책으로 거론된다. 우리 사회가 사회복지무요원에게 더 관심을 갖고 그들이 처한 어려움에 대해 공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강 변호사는 "사회복지무요원 제도가 갖는 여러 문제점들에 대해 더 활발하게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유성 기자 meteor11@hansung.ac.kr

## 그 법의 어제와 오늘

투자자들의 대규모 손실을 가져온 '홍콩 ELS 사태'가 발생한 이후, 지난달 18일 금융당국이 피해를 입은 투자자를 위한 배상안 마련에 착수했다. 우리말로 '주가연계증권'이라 불리는 'ELS(Equity-Linked Securities)'는 특정 주식의 가격이 오르면 주가지수에 연계를 수익을 발생시키는 금융상품이다. 계약 만기 시점까지 주가 또는 주가지수가 정해진 구간을 유지한다면 투자자는 약속된 수익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사태에서는 계약 이후 해당 ELS에 연계된 주가지수가 급속도로 하락했고, 정해진 구간을 벗어나면서 투자자들이 손실을 입게 됐다. 판매원이 해당 ELS를 판매할 당시 정기에금의 대체 상품으로서 위험성이 낮다고 설명하며 투자를 유도한 사실이 밝혀지자, 해당 판매원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여론이 발생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상품판매업자가 판매 시 지켜야 할 준수사항 등을 명시한 법률로,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높이기 위해 2021년 3월부터 시행됐다. 해당 법률 제19조에서 금융상품판매업자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금융 계약 요청 및 판매 시, 해당 금융상품의 정보에 관해 일반금융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일반금융소비자란 은행, 금융회사 등 전문금융소비자를 제외한 모든 금융소비자를 지

## '금소법' 빈틈에 피해 입는 금융소비자

칭한다. 제15조에서는 금융상품판매업자가 성별·학력·장애·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계약 조건에 있어 금융 소비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금융상품 계약 체결 시 손실 위험이 크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는 등의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됐다.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법령의 필요성은 2008년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대두됐다. 글로벌 금융 위기로 우리나라에서 환율이 급등했고, 일정 범위 내에서 환율이 유지돼야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키코'라는 금융상품 등으로 인해 많은 투자자들이 손실을 봤다. 한창희(국민대학교 법과대학) 명예교수는 "국제적인 금융변화와 키코 사태, 부산저축은행 사태 등 금융사고 발생으로 금융규제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2010년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최초로 입법 예고했지만, 전문가들이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범위나 방식 등에서 이견을 보이며 법률 제정에 이르지 못했다. 이후 2019년 일부 은행에서 원금 손실의 위험성이 큰 파생상품을 금융소비자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판매한 사실이 적발되며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대한 재논의가 이뤄졌고, 2020년 3월 제정에 성공했다.

하지만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보호하지 못한 '사각지대'는 여전히 남아있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가장 먼저 '집단소송제'를 법률에 포함하지 않은 것이 문제

로 제기된다. 집단소송제란 기업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다수의 투자자 중 대표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도 함께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다. 집단소송제의 부재로 인해 피해자가 개인이 금융회사와 소송을 진행해 각각 승소해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상복(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백 명이 이르는 피해자 모두가 개인별로 소송을 걸 여건은 충분치 않다"며 "집단 금융 피해자들은 각자가 모두 소송을 걸어 승소해야만 피해 보상이 이뤄지게 된다는 어려움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금융상품판매자가 계약 조건에서 금융소비자를 차별하는 행태를 금지한 제19조도 느슨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해당 조항에서는 차별 요소를 '성별·학력·장애·사회적 신분'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차별 요소 19개를 계약상 명시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에 비해 부족하다. 금융거래 시 특정 계층에 속한 사람에게만 계약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고령층이라는 이유만으로 판매를 거부하는 행위 등의 차별을 완전히 보호하기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박노건(동국대학교 국제정보보호대학원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금융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별을 더 들여다보고, 구체적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열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회사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 집단소송제 도입이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한다. 집단소송제가 도입된다면 대표 당사자만 소송을 제기해도 모든 피해자가 보상받을 수 있게 되며, 각 개인이 처한 여건 등의 이유로 소송을 포기하는 일이 줄기 때문이다. 이 교수는 "현재는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이 있지만 금융거래를 주 대상으로 한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전했다.

차별금지 조항의 경우, 차별받을 수 있는 요소를 구체적으로 열거한다면 4개의 요소만을 언급한 현행법을 이용해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갈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이 교수는 "금융거래에서의 소비자들이 받는 차별을 줄이기 위해선 차별요소 하나하나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이 더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금융교육을 통해 소비자 스스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법률의 보완만큼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 교수는 "개인 차원에서 일반 시민들도 금융 공부를 할 필요가 있으며, 국가적 차원에서 금융교육을 의무로 시행해 중·고등 교육과정과 대학에서의 교육과정에도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주가지수 : 주식시장에서 각 기업의 주가 변동 현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낸 지표

황서연 기자 hsy040623@gmail.com

# AI의 두 얼굴

“시리아, 지금 몇 시야?” “헤이 빅스비, 친구에게 전화 걸어줘.” 스마트폰에 탑재된 인공지능(AI)에게 한 번쯤 해본 말이다. 시간을 안내하고 전화를 걸어주던 인공지능은 이제 실시간으로 외국어를 통역하고 방대한 양의 정보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게 정리하는 등 엄청난 발전을 거듭해왔다. 지금도 인공지능은 스스로 학습하고 발전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인공지능이 우리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커지고 있다.

그렇다면 인공지능의 발전이 과연 우리에게 좋은 점만 가져다줄까. 인공지능은 인간의 명령을 곧이곧대로 따를 수밖에 없기에, 인간이 인공지능을 범죄에 활용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인공지능의 잘못된 활용 사례와 부작용 등을 알아야 더욱 발전할 인공지능을 슬기롭게 활용할 수 있을 테다.

인공지능이 프로필 사진을 제작해 준다. 얼굴이 나온 사진 몇 장을 넣으면 곧 흰칠한 내 모습이 담긴 사진이 여러 장 생성된다. 어떻게 순식간에 프로필 사진을 여러 장 생성할 수 있는 것일까? 얼굴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초래되는 문제는 없을까? 인공지능 프로필(이하 AI 프로필)의 원리와 그로 인해 나타나는 사회 문제를 알아본다.

김유성 기자 meteor11@hansung.ac.kr

## 다양한 콘셉트에 나를 대입하다

AI 프로필 기술이 인기를 끌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에 얼굴이 들어간 사진을 10~20장 가량 투입하면 짧게는 한 시간, 길게는 하루 안에 다양한 콘셉트의 사진이 제작된다. AI 프로필 기술은 특별한 메이크업을 받지 않아도 다양한 화장법과 헤어스타일이 반영된 사진을 얻을 수 있어 많은 사람의 관심을 끌고 있다. 프로필 사진의 가격이 10만 원가량에 육박하는 지금, 1만 원도 채 안 되는 가격을 지불하면 여러 장의 AI 프로필 사진을 얻을 수 있다. 인공지능은 어떻게 짧은 시간 안에 다양한 콘셉트의 사진을 여러 장 생성할 수 있는 것일까?

일반적인 증명사진과 같은 단순로운 배경부터 평소 접하기 어렵고 특별한 배경까지, AI 프로필을 생성하면 다양한 배경에서 찍은 듯한 사진을 얻을 수 있다. 때문에 AI 프로필을 제작하려면 배경을 가장 먼저 생성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Diffusion Model(이하 디퓨전 모델)'이라는 기술이 쓰인다. 디퓨전 모델이란 '노이즈'로부터 원하는 사진을 추출하는 경로를 학습하는 과정을 말한다. 노이즈는 디지털 사진에서 의도하지 않은 여러 신호들이 이미지에 나타나는 상태를 일컫는다. 신호 연결이 제대로 되지 않은 채로 TV를 켜볼 때 볼 수 있는 지지직거리는 화면이 노이즈의 대표적인 예시다. 노이즈로부터 원하는 사진을 만들기 위해 불필요한 신호는 제거하고, 필요한 신호는 추가하는 방식으로 배경이 되는 사진을 추출한다. 이 과정을 여러 차례 반복함으로써, 인공지능은 프로필을 만들려는 사용자가 많아도 빠른 속도로 배경 사진을 생성할 수 있게 된다. 오희석(한성대학교 AI응용학과) 교수는 "특정 사진 제작 경로를 인공지능에 학습시켜 놓으면 해당 콘셉트의 사진이 필요할 때마다 바로 추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배경 사진을 생성했다면, 그 위에 사용자가 투입한 얼굴 사진을 합성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는 'Fine-tuning(이하 파인튜닝)' 기법이 사용된다. 우리말로 '미세조정'이라는 뜻으로, 인공지능에 새로운 데이터를 학습시키고 그 데이터에 대해 동작할 수 있도록 만드는 과정이다. AI 프로필 제조사들은 파인튜닝 기법 중에서도 'Dreambooth(이하 드림부스)' 기술을 주로 사용한다. 드림부스는 투입된 얼굴 사진을 기반으로 새로운 얼굴 사진을 생성하는 기술이다. 여러 파인튜닝 기법 중에서도 몇 장의 사진만으로 특정 개인의 얼굴이 반영된 결과물을 제작할 수 있다는 점이 드림부스가 주로 사용되는 이유다. 오 교수는 "AI 프로필 제조사에서는 배경 사진을 몇 장 만들어 두고 사용자가 투입한 사진을 기반으로 드림부스 기술을 사용해 이용자의 얼굴이 들어간 AI 프로필 사진을 제공하는 기술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드림부스가 만든 얼굴 사진을 배경 사진에 바로 합성하면 두 사진의 색상, 질감 등이 달라 자연스러운 느낌의 사진을 만들 수 없다. 따라서 배경과 얼굴 사진 사이의 이질감을 줄이기 위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를 위해 배경 사진과 얼굴 사진의 이미지 코드가 포함하고 있는 정보를 서로 교환하면서 색상이나 질감 등을 비슷하게 바꾼다. 이 과정에서는 'Cross Attention(이하 크로스 어텐션)' 기술이 사용된다. 크로스 어텐션을 통해 배경 사진과 얼굴 사진 사이의 이질감을 줄여 더 자연스러운 사진으로 만드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다. 이수진(세종대학교 인공지능데이터사이언스학과) 교수는 "사용자의 얼굴이 가진 특성을 인공지능이 이해할 수 있는 형식으로 변환해 이용자의 얼굴과 배경 사진의 정보를 연산한다"며 "이 과정을 통해 얼굴과 배경 사이의 경계를 자연스럽게 만들고 색상 등 스타일을 일치시키는 것"이라고 전했다.

AI 프로필을 만드는 과정에서 다량의 연산 작업을 수행하기에 기술적 한계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 초기에 생성된 AI 프로필 사진은 크기가 작다. 때문에 마지막으로 사진의 크기를 키우는 과정을 거친다. 이 과정에서 사진의 해상도를 높이는 '초해상도(Super-Resolution)' 기법이 사용된다. 사진을 키우는 과정에서 화질이 저하되거나 불필요한 노이즈가 나타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초해상도 기법을 사용하면 화질을 보존하면서도 불필요한 노이즈를 제거하면서 사진의 크기를 키울 수 있다. 이 과정까지 거치면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AI 프로필 사진이 완성된다. 이 교수는 "모든 과정을 거치면 인공지능은 최종적으로 이용자의 얼굴이 포함된 AI 프로필 사진을 생성한다"며 "이 사진은 이용자가 원하는 스타일, 테마 등에 맞춰 최적화된 결과물"이라고 설명했다.

AI 프로필은 지불하는 가격에 따라 제작 시간이 짧게는 1시간 이내, 길게는 하루가 소요된다. 소요 시간은 다르지만, 사용되는 기술에는 변함이 없다. 단지 지불하는 가격에 따라 이용자 간의 제조 순서에 차이를 두기 때문에 AI 프로필을 제작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달라지는 것이다. AI 프로필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다량의 연산 작업이 필요하다 보니 동시에 여러 작업물을 제작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래서 더 높은 비용을 지불한 이용자의 사진을 먼저 제작할 수밖에 없다. 오 교수는 "인공지능이 학습 후 프로필 사진을 생성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30분 이내"라며 "AI 프로필 업체에서 사진을 제작하는 양에 한계가 있다 보니 이용자가 지불하는 비용에 따라 자체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해상도 : 컴퓨터 화면 등에 나타나는 그림이나 글씨의 선명도

# AI 퍼블리시티권



## 누가 언제 만들지 모른다

인공지능이 사진을 생성하는 기술은 여러 사회 문제를 낳고 있다. 인공지능의 기술이 발전하면서 현실과 가까운 느낌을 줄 정도로 사실적인 사진을 생성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체포되는 사진이나 수감된 사진이 제작돼 인터넷에 퍼지면서 많은 이들이 실제 사진으로 오해하는 등의 사건이 있었다. 이처럼 인공지능은 가상과 현실을 넘나들며 사회의 혼란을 유발한다.

인공지능이 실제와 가까운 사진을 생성하면서 AI 프로필 사진도 주목받았다. 실제 사진을 넣으면 현실과 유사한 사진을 여러 장 만들어줘 많은 이들의 인기를 끈 것이다. 박미애(경북대학교 인공지능융합대학) 교수는 "AI 프로필은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스타일이 반영된 높은 품질의 사진을 짧은 시간 내에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용자 사이에서 인기 있는 서비스로 자리 잡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AI 프로필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이라는 점에서 많은 문제점을 야기한다. 우선 AI 프로필을 이용하는 본인이 아닌도 연예인 등 타인의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해 AI 프로필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된다. 당사자의 동의 없이 AI 프로필을 제작한다면 얼굴이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돼 초상권을 침해하기 때문이다. 박 교수는 "AI 프로필은 본인이 아니어도 특정인의 얼굴이 나온 사진을 갖고 있는 누구나 프로필 사진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된다"고 전했다. 임병호(단국대학교 심리치료학과) 교수는 "본인의 허락 없이 신원이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는 것은 범죄 유무와 별개로 심각한 윤리적 위반행위"라고 밝혔다.

연예인과 같은 타인의 얼굴을 무단으로 도용해 AI 프로필을 제작하는 것은 퍼블리시티권<sup>\*</sup>을 침해하는 행위다. 특히 연예인의 사회적 지위와 인상은 다방면에서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에 부적절하게 사용될 경우 심각한 명예훼손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만약 연예인의 퍼블리시티권이 침해돼 광고나 홍보 등에서 수익 감소로 이어질 경우 그 손실은 더욱 커진다. 최근에는 일반인도 TV에 출연하거나 SNS 활동을 활발히 하는 만큼 퍼블리시티권은 일반인에게도 적용된다. 박 교수는 "퍼블리시티권의 무단 사용은 해당 인물이 자신의 명성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잠재적 수익 감소로 인한 손해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AI 프로필은 이용자의 얼굴을 기반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딥페이크' 범죄에도 쉽게 노출될 수 있다. 딥페이크란 'Deep Learning'과 'Fake'의 합성어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기존 인물의 얼굴 등을 사진에 합성한 가짜 이미지나 영상을 뜻한다. AI 프로필은 인공지능이 사진을 제작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AI 프로필 또한 딥페이크에

해당되며, 타인의 사진을 무단 도용해 선정적인 AI 프로필을 제작하는 것 또한 딥페이크 범죄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많은 사람이 SNS에 얼굴이 드러나는 사진을 게시하면서 일반인의 사진을 도용해 AI 프로필을 제작할 우려도 존재하기 때문에 더욱 위험하다. 이은희(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는 "본인의 동의 없이 타인을 AI 프로필로 제작해 유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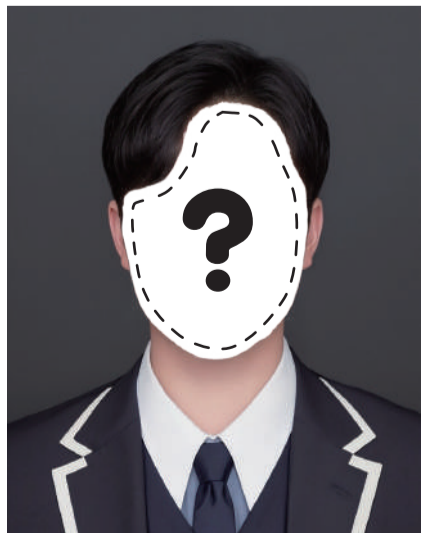
연령 제한 없이 누구나 이용 가능한 AI 프로필은 미성년자가 이용했을 때 미성년자를 선정적으로 묘사해 성적 대상화할 위험도 존재한다. AI 프로필을 이용하면 선정적인 사진이 생성되거나 딥페이크 등의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만약 미성년자의 얼굴이 들어간 선정적인 AI 프로필을 유포한다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박 교수는 "선정적인 미성년자 이미지 생성은 디지털 착취 및 학대의 한 형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미성년자가 딥페이크와 같은 범죄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면 부적절한 콘텐츠 제작의 주체가 미성년자가 될 가능성도 있다. 이는 곧 미성년자의 개인 정보 보호나 온라인 안전에 대한 이해가 왜곡되는 문제를 낳기도 한다. 박 교수는 "미성년자와 관련한 부적절한 콘텐츠를 생성하는 AI 프로필 문제는 인공지능 생성 미디어 영역 내에서 매우 중요한 윤리적 문제"라고 강조했다.

본인이 아닌 AI 프로필 유포를 막기 위해, AI 프로필을 만들 때 이용자 본인의 얼굴이 나온 사진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현재는 AI 프로필과 관련한 법령이 부재할 뿐 아니라 서비스 제공 업체에서도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때문에 본인 얼굴이 나온 사진만 이용하도록 규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받게 한다면 초상권 침해 문제 등을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AI 프로필 사진을 제작할 때 이용자 본인의 얼굴만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면 명확한 경계를 설정해 사진 남용을 막을 수 있다"고 전했다.

AI 프로필이 선정적인 사진을 생성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치도 해결 방안으로 제기된다. 해당 조치가 시행된다면 AI 프로필을 이용하는 미성년자가 범죄 등에 노출될 위험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조원희(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는 "유튜브에서 선정적인 동영상을 업로드하거나 검색하는 것을 막는 것처럼 AI 프로필 앱에서 선정적인 사진 생성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퍼블리시티권 : 초상, 성명 등 그 사람의 정체성을 상업적으로 이용해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



# 습관도 성격도 아닌 ‘만성질환’, 성인 ADHD

강의 하나에 집중하지 못하고 나도 모르게 다른 일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만성적인 지각으로 학점에 지장을 주고 계획적인 삶이 어렵다고 느껴질 때는 없는가. 단 순히 습관, 성격상의 이유가 아닌 뇌과학적 문제로 나타나는 질환, ‘성인 ADHD’일 수 있다. ADHD는 주로 소아·청소년이 앓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최근 들어 성인, 특히 20대 ADHD 환자가 증가하는 추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대 ADHD 진료실인원 현황은 2017년 5,761명에서 2021년 22,132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ADHD란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의 약자로,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를 의미한다. ▲과잉행동 ▲집중력 부족 ▲과도한 집중 ▲충동성 ▲감정 조절 불가 등이 주요 증상이다. ADHD는 기억력과 사고력을 담당하는 전두엽에서 계획·형성·이성적 사고 능력 등에 관여하는 전전두엽의 발달이 지연돼 발생하는 질환이다.

대표 증상인 과잉행동은 성인 ADHD에선 찾아보기 어렵다. 과잉행동이란 부적절한 상황에도 과도하게 수다스럽거나 산만한 상태를 의미한다. 전전두엽 내에서도 부위별로 발달 속도가 다르며 특히 과잉행동을 조절하는 부위는 먼저 성장한다. 때문에 소아·청소년 ADHD와 비교해 성인 ADHD에선 증상이 나타날 확률이 낮다. 원승희(경북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성장하며 과잉행동을 조절하는 뇌 부위가 우선 발달해 과잉행동 증상은 호전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성인 ADHD의 주요 증상을 ‘집중력 부족’이라고 말한다. 성인 ADHD 환자는 아주 간단한 일임에도 끝내는 데 어려움을 느끼거나 한 가지 일을 마무리 짓지 못하고 어느새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세밀한 부분을 간과하는 실수가 잦으며 본인도 상관없는 시각적 측면과 작은 소리에 쉽게 반응한다. 서경현(삼육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수는 “집중력 저하로 물건을 자주 잃어버리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성인 ADHD 환자들은 만족감과 성취감을 느끼게 하는 보상과 자극에 취약하기도 하다. 이에 그들이 수용하는 정보의 자극성에 따라 ‘과도한 집중’ 증상을 보인다.

다. 게임이나 도박, 이성 관계 등과 같은 심한 자극에 집중하게 되면서 중독 증세로 이어지기도 한다. 과도한 집중으로 인해 약속을 잊거나 본인이 해야 하는 중요한 일을 놓치는 문제도 발생한다. 김수지(연세대학교약학부) 센터장은 “성인 ADHD 환자들은 게임과 도박 등 여러 자극적인 중독에 극단적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전했다.

충동과 욕구를 스스로 조절하지 못하는 ‘충동성’도 성인 ADHD의 증상이다. 순간적인 충동으로 타인에게 해가 되는 행동을 반복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다른 사람의 대화에 끼어들고 무례하거나 부적절한 생각을 그대로 내뱉어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결과를 고려하지 않고 돌발적으로 행동해 타인의 질타를 받기도 한다.

성인 ADHD 환자들은 감정 조절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충동성과 더불어 감정 조절 문제로 원만한 대인 관계를 가지기 어려운 경우가 존재한다. 특히 소아·청소년기부터 ADHD를 앓아온 환자들은 타인과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데에 더욱 어려움을 느낀다. 이에 다수의 성인 ADHD 환자는 우울증과 불안장애 같은 정신 질환을 함께 앓는다. 서보경(울지대학교 휴먼서비스학부) 교수는 “성인 ADHD 환자는 타인에 의한 자존감 하락으로 사회적 활동이 점점 줄어들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우울증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ADHD의 직접적 원인이 되는 전전두엽 발달 지연은 ‘도파민’과 ‘노르에피네프린’이라는 신경전달물질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타난다. 우리의 뇌는 신경세포 간에 주고받는 신호를 통해 감정과 감각 등을 느끼는데, 이 신호를 다른 신경세포로 전달하는 역할을 ‘신경전달물질’이 수행한다. 신경세포에서 분비된 신경전달물질이 신경세포를 상호 연결하는 ‘시냅스’를 오가며 신호를 전달하고, 이 과정에서 여러 시냅스로 구성된 ‘신경회로’를 통해 감각을 느끼는 것이다. 성취감 등을 느끼게 하는 도파민과 집중력에 영향을 주는 노르에피네프린이 부족해 시냅스와 신경회로에 이상이 발생하고, 이것이 ‘신경 네트워크’와 전전두엽의 발달에 영향을 주며 ADHD가 나타나게 된다.

ADHD 환자에게 이상이 발생하는 신경회로는 ▲인지 조절 네트워크 ▲디폴트모드 네트워크 ▲도파민 회로다. 이 중 도파민 회로를 제외한 두 신경 네트워크는 노르에피네프린의 부족으로 인해 이상이 발생하는 신경 회로이며, 도파민 회로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 도파민의 부족이 이상을 유발하는 신경회로다.

‘인지조절 네트워크’는 뇌에서 수용하는 정보를 처리하고 충동을 억제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주의력 결핍과 충동성의 증세를 보이는 ADHD 환자에게는 이 신경 네트워크의 기능이 저하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디폴트모드 네트워크’는 외부 환경과 요소에 집중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활성화되는 신경 네트워크를 말한다. 우리가 무언가에 집중할 때, 디폴트모드 네트워크는 반응하지 않지만 인지조절 네트워크는 활성화된다. 이처럼 디폴트모드 네트워크와 인지조절 네트워크는 반대로 작용한다. 하지만 ADHD 환자들은 인지조절 네트워크가 활성화될 때에도 디폴트모드 네트워크가 약해지지 않고 과활동을 보이는 등의 이상소견이 발견된다. 이로 인해 집중해야 하는 상황에 잡다한 생각이 자주 들어 집중하지 못하는 증상을 겪는다.

만족감과 성취감을 느끼게 하는 ‘도파민 회로’에도 이상이 나타난다. 도파민 신경전달물질 부족으로 ADHD 환자의 도파민 회로는 일반인의 뇌 도파민 회로에 비해 비활성화돼 있다. 이에 보상을 받는다는 느낌을 잘 받지 못해 지루함을 자주 느끼고 새롭게 느껴지는 자극과 그에 따른 보상에 취약한 것이다.

도파민과 노르에피네프린이 부족한 현상은 환경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다. 임신부의 음주와 흡연, 약물남용 등으로 발생하는 불안정한 태내 환경 형성은 태아에게 신경학적 손상을 남겨 신경회로의 기능이 떨어지는 등의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로 인해 생애 단계에서 문제가 나타나지는 않지만, 성장하면서 ADHD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 서경현 교수는 “임신 중 술을 마시면 태아 알코올 증후군으로 태어날 수 있으며 ADHD로도 태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어릴 때는 ADHD 증상이 없다가 성인이 되면서 뒤늦게 ADHD가 나타나는 경우도 존재한다. 이는 도파민이 후천적으로 부족해지면서 생기는 것이다. 수면 부족과 비만 등은 도파민 생산과 전달에 영향을 주면서 후천적으로 ADHD를 유발한다. 또한 선천적으로 ADHD 기질이 있지만 안정적인 환경에 있어 눈에 띄지 않다가 심한 학대, 방임 등과 같은 사회적 요소에 노출되면서 ADHD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성인 ADHD는 주로 약물을 통해 치료한다. 약물치료에는 도파민과 노르에피네프린의 재흡수를 막는 ‘메틸페니데이트’ 계열의 약물을 사용한다. 신경세포에서 분비된 신경전달물질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신경세포 안으로 다시 흡수되는데, 이 과정을 ‘재흡수’라고 부른다. 메틸페니데이트는 재흡수를 방해해 신경전달물질이 신경회로에서 더 오래 머무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원 교수는 “ADHD는 도파민과 노르에피네프린을 증가시키는 약물을 처방한다”고 밝혔다.

인지행동치료 또한 치료 방법 중 하나다. 인지행동치

### 성인 ADHD 자가보고척도 (ASRS)

- 어떤 일의 어려운 부분은 끝내놓고, 그 일을 마무리 짓지 못해 곤란을 겪은 일이 있다.
- 체계가 필요한 일을 할 때, 순서대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 약속이나 해야 할 일을 잊어버려 곤란을 겪은 일이 있다.
- 끝치 않은 일은 피하거나 미루는 경우가 있다.
- 오래 앉아있을 때, 손을 만지작거리거나 발을 꼬지락거리는 경우가 있다.
- 마치 모터가 달린 것처럼 과도하게 혹은 멈출 수 없이 활동하는 경우가 있다.
- 체크한 문항이 4개 이상이면 성인 ADHD 의심

료는 약물치료만으로 호전되지 않는 증상들을 해소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일정 계획하기, 주의를 분산시키는 환경 정리하기, 우선순위 정하기 등 집중력을 높이고 규칙적으로 생활하도록 교정해 준다.

전문가들은 근본적으로 자신의 ADHD 증상에 맞는 유용한 습관을 찾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주의력 결핍 증상이 심해 이를 고칠 수 있는 행동 교정이 필요하다면 요가, 명상 등의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김수지 센터장은 “생각을 정리하고 싶으면 명상을 추천하며 충동적인 부분을 발산하고 싶다면 운동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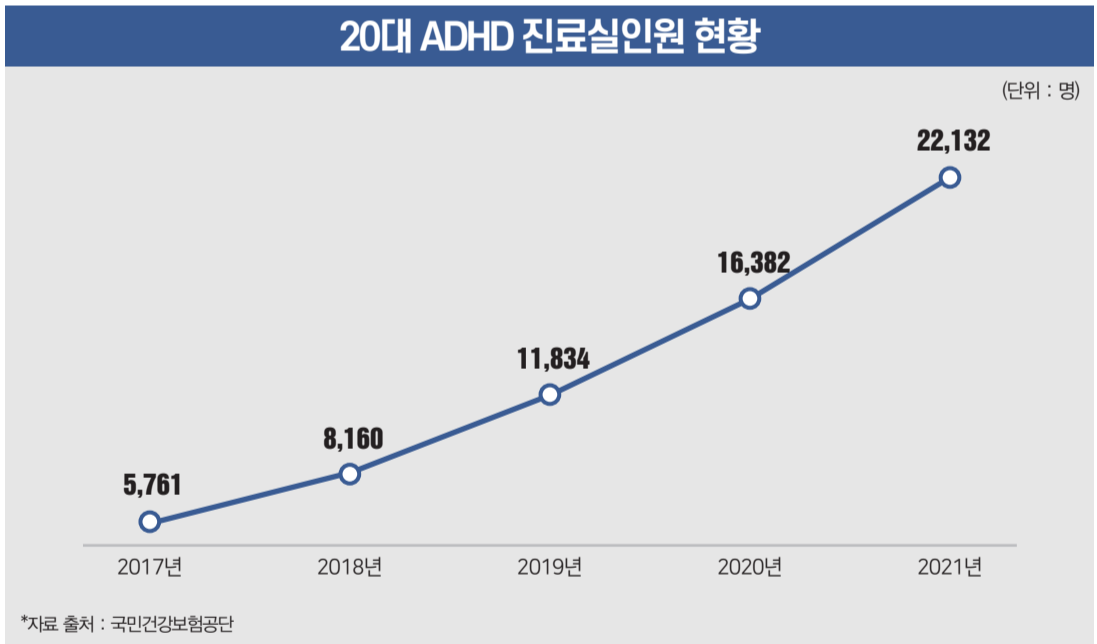
치료보다도 중요한 건 자신이 ADHD 환자임을 인지하는 것이다. 성인 ADHD 발병률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인데 비해 질환의 인지도는 낮은 편이다. ADHD임에도 본인의 성격이나 가벼운 건망증으로 여겨 증상이 눈에 띄게 심해져야 질환으로 의심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미리 인지하면 빠르게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기에 많은 전문가들은 스스로 ADHD를 의심할 수 있는 ‘성인 ADHD 자가보고척도(이하 ASRS)’를 활용을 권장한다. ASRS는 ADHD의 주요 증상인 주의력 결핍, 산만한 등이 본인에게 해당하는지 파악할 수 있는 6개의 질문으로 구성돼 있다. 질문 중 4개 이상에 해당된다면 ADHD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기에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하다. 서보경 교수는 “ASRS를 먼저 해보고 ADHD가 의심된다면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진료실인원 : 건강보험 가입자 중 1년간 실제 검사 및 진단을 받은 환자 수

\*\*신경 네트워크 : 신경회로가 모여 형성된 거대한 네트워크망

권수연 기자 tndusk03@gmail.com



## 맛있는 사이언스

## 딸기잼 만들기의 핵심은 ‘끈적함’

딸기의 계절이 돌아왔다. 농업의 발달 덕분에 계절 구분 없이 딸기를 접할 수 있는 시대이지만, 본래 ‘노지’에서 재배하는 딸기는 봄철인 3~5월에 주로 수확해 왔다. 최근에는 딸기 라떼나 딸기 탕후루 등 다양한 방법으로 딸기를 먹지만, 과거부터 세대 구분 없이 인기 있었던 딸기를 활용한 음식은 ‘딸기잼’이다. 딸기잼이 처음 만들어진 시기는 기원전 4세기경으로,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드로스 3세가 인도를 침공한 후 유럽으로 설탕이 전래되고 잼을 만들기 시작했다고 전해진다. 과거 유럽에서 설탕은 귀족들만의 것으로 간주돼 잼이 귀족층 음식으로 여겨졌지만, 평범한 계층도 설탕을 소비할 수 있게 되면서 딸기잼 또한 대중적인 음식으로 자리 잡았다. 이후 가공된 식품을 유리병에 넣어 밀봉해 보관하는 ‘병조림법’이 발전하면서 더욱 대중화될 수 있었다.

딸기잼을 만들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딸기를 으갠 후 가열하는 것이다. 잘게 으갠 딸기잼에 당이 들어가 형성되지 않기 때문이다. 과일에는 기본적으로 세포와 세포 사이를 결합시키는 ‘펙틴’이라는 성분이 함유돼 있다. 그러나 딸기는 사과나 귤 등 다른 과일

에 비해 펙틴 함량이 적기 때문에 가열 과정에서 펙틴을 첨가해야 한다. 결합력이 강한 펙틴을 더 넣음으로써 잼을 더욱 응고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만약 펙틴을 첨가하지 않는다면 결합력이 낮아져 잼의 모양이 유지되지 않는다. 잼이 갖고 있는 끈적함이 사라져 죽과 같은 묽은 성질을 띠게 된다. 장세은(울지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는 “펙틴의 끈적함을 높여주는 역할은 잼을 만드는 데 있어 중요하다”고 전했다.

펙틴은 수용성 물질이기 때문에 물에 녹아있다. 그러나 펙틴은 수분 없이 펙틴끼리 결합해야 점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설탕을 첨가해 설탕이 수분을 모두 가져가게 만들어야 한다. 설탕은 수분과 친한 성질을 갖기에 수분을 잘 흡수한다. 또한 흡수한 수분을 잘 빼앗기지 않고 보유하는 보수성도 지닌다. 수분이 빠져나간 펙틴은 결합력이 강해져 잼을 더욱 탱탱하게 만들어준다. 설탕을 첨가하지 않는다면 펙틴이 수분과 결합하기 때문에 결합력이 약해진다. 한정우(덕성여자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는 “당분이 수분을 가져가면 점성이 강해져 더 끈적끈적해진다”고 설명했다.

당분이 수분을 가져감으로써 미생물이 살 수 있는 환경을 억제할 수도 있다. 수분 함량이 높으면 세균이나 곰팡이 등 미생물의 성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 미생물은 식품 속 자유수\*\*에서 주로 증식하기 때문이다. 미생물의 성장은 곧 식품의 부패로 이어지며, 따라서 식품의 수분 함량을 낮추는 것은 중요하다. 권창우(한남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는 “물이 당과 결합하면 자유수의 함량이 줄어들어 미생물이 물을 이용할 수 없고, 성장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잼을 만드는 데 최적의 당분과 수분을 형성했다면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은 적정 산도를 맞추는 것이다. 잼을 제조하는 가장 적절한 산도는 pH\*\*\* 2.7~3.6이며, 해당 산도를 벗어나면 젤리화가 일어나지 않아 잼이 형성되지 않는다. 딸기의 산도는 pH 5~6가량이기 때문에 딸기잼을 만들기 위해서는 유기산을 통해 산도를 낮추는 과정이 필요하다. 음이온이 함유돼 있는 펙틴에 양이온을 가지고 있는 유기산을 넣으면 음이온과 양이온이 결합하면서 펙틴 등 다른 성분들도 함께 결합해 응고기 더 잘 된다. 유기산을 첨가하지 않는다면 응고기 잘 이

뤄지지 않아 끈적함이 원하는 정도까지 도달하지 못한다. 장 교수는 “유기산을 추가로 첨가할 때 딸기잼의 적정 산도를 고려해 양을 잘 조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잼과 같이 과일로 만든 식품은 시간이 지나면 색이 검게 변하는 갈변현상이 나타난다. 갈변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과일의 껍질을 벗기거나 파쇄하면 과일 내의 효소가 산소를 만나 산화 과정을 거치게 되고 점차 갈색으로 변하기 때문이다. 갈변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레몬즙과 같은 항산화제를 첨가하면 된다. 레몬즙에 다량 함유된 비타민C가 과일보다 먼저 산화 반응을 일으켜 과일의 산화반응을 억제한다. 장 교수는 “과육을 가열하기 전 레몬즙을 첨가하면 갈변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고 첨언했다.

\*노지 : 지붕 등으로 덮거나 가리지 않은 땅  
 \*\*자유수 : 식품의 구성성분과 결합하지 않고 자유롭게 이동하는 물  
 \*\*\*pH : 수소 이온 농도로, 화학에서 물질의 산성 및 알칼리성의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로 사용됨

김유성 기자 meteor11@hansung.ac.kr

\*외부 필자의 칼럼은 본사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삼 학 송 ·

# 모두가 원하는 개혁이 되려면

또 한 번의 개강을 맞이할 준비로 분주한 대학가에 새로운 이슈가 던져졌다. 바로 '무전공 입학'이다. 교육부는 지난 1월, 무전공 입학을 늘리는 대학에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무전공 입학이란 그야말로 전공 없이 입학해 1학년 때는 다양한 전공을 탐색해 보고, 2학년이 될 때 전체 대학 또는 소속 단위 내에서 전공을 선택하도록 하는 학사제도를 말한다. 변화하는 산업·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인 인재를 기르기 위해, 대학도 기존의 학과제에서 벗어나 유연하게 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무전공 입학 확대의 취지다.

교육부가 추구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이해하지만, 무전공 입학이 대학 내에서 많은 문제를 유발한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취업이 어렵다고 일컬어지는 기초학문을 배우는 학과는 학생들의 선택을 받지 못해 폐교 등의 위기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학생들의 인기가 높은 학과는 정원을 훌쩍 넘는 학생들로 인해 교·강사 인력 및 공간 부족 등의 문제에 시달린다. 본인은 무전공 입학을 기반으로 하는 트랙제 시행 대학의 학생으로서 그 부작용을 몸소 겪은 적도 있기에, 교육부의 발표 직후 쏟아진 우려의 의견에 먼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이 같은 우려를 불식시킬 만한 보완책은 내놓지 않았다. 심지어 이 같은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일부 대학이 '광역모집'이라는 이름으로 단과대학·학부 단위의 신입생을 받았다가, 여러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학과제로 회귀한 사례가 존재한다. 미래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변화는 꼭 필요하지만, 변화의 과정에서 발

생하는 예견된 피해를 막을 방도 또한 반드시 마련돼 있어야 한다.

더 큰 문제는 변화를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등록금 동결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재정난을 겪고 있는 대학에게 금전적 지원은 거절하기 어려운 제안이다. 대학은 교육부가 가리키는 방향만을 목적지로 삼을 수밖에 없게 된다. 대학 구성원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은 자연스레 뒷전으로 밀려난다. '일방통행' 변화는 이미 시작된 것이나 다름없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지난 1월에 135개 회원대학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현재 무전공 입학을 시행하지 않는 74개교 중 57개교(77.0%)가 '도입 예정'이라고 답했다.

변화에 앞서, 대학을 둘러싼 구성원이 대학의 미래에 대해 교육당국과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대학의 변화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존재는 대학의 구성원이기 때문이다. 산업이 원하는 융합인재 양성, 원하는 전공을 학습할 기회 제공 등 무전공 입학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논란을 잠재울 방안을 찾기 위해 논의는 꼭 필요하다. 어떤 개혁이 필요인지, 개혁의 수혜를 온전히 입지 못하는 구성원이 존재하는지는 교육 현장에서만 찾을 수 있을 테니 말이다.

소통이 핵심 가치를 넘어 기본적인 소양으로 요구되는 시대다. 교육부가 미래를 위해 어떤 결과를 도출해야 할지 고민하다, 시대에 역행하는 방식을 따르고 있음을 놓치지 않기 바란다. 또한 무전공 입학에 관한 논의의 장이 모두에게 지속 가능한 대학이 될 수 있는 더 많은 방안을 이끌어내는 토론의 장으로 발전할 수 있기를 염원한다.

정성혁 편집국장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당시 드러난 의료공백 문제를 지적하고자 인권대응네트워크 등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지난달 20일 서울 세종대로에 모였다. 그들은 코로나19 당시 의료공백을 발생시킨 의료체계를 지적했다. 당시 수익성 약화를 우려한 민간병원은 코로나19 의심 환자의 진료를 거부했고, 의료 인력과 병상이 부족한 공공병원이 대다수의 코로나19 관련 환자를 진료해야 했다. 공공병원의 수를 늘리거나 예산을 확대하는 등 공공의료 개선을 위한 정부의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 병원을 찾는 구급차에서의 기다림이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는 시급히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황서연 기자 hsy040623@gmail.com

## ■ 기자수첩

화재 구조 작업 중 2명의 소방공무원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지난 2월 발생했다. 화재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수호하다 목숨을 잃거나 다치는 소방공무원이 매년 늘고 있다. 소방청의 통계에 따르면, 소방공무원 순직·공상자'는 2021년 936명에서 2022년 1,083명으로 증가했다. 소방공무원의 희생은 끊이지 않고 있음에도, 그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쓰이는 예산은 감축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가 '소방안전교부세' 중 75% 이상을 소방시설·장비 확충 등에 사용해야 한다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부칙을 2024년 말까지 유지한다고 지난 12월 밝혀, 올해가 지나면 소방시설·장비 확충을 위해 투입될 예산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소방안전교부세란 중앙정부가 소방 인력 운용, 소방시설 확충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세금이다. 소방 장비 노후 문제 해결 등을 위해 2015년 신설돼 지금에 이르고

## 송고한 희생정신에 답할 때

있다. 소방공무원의 근무 환경을 안전하게 조성하려면 소방 차량 및 장비의 주기적인 교체가 필요하기에, 관련 예산 확보는 필수적이다. 안정적 재원 역할을 해왔던 소방안전교부세의 소방시설 장비 확충 분야의 예산 투입이 감축된다면 관련 시설·장비 등의 교체 예정 시기에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다. 소방공무원이 지방직 공무원에서 국가직 공무원으로 변경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소방청의 예산은 지자체에 상당수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나마 소방안전교부세 투입이라는 특례가 있어 안전한 소방 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기에 연장이 필요하다.

소방 분야에서 예산이 적절히 투입되지 못한다면, 소방공무원의 사기와 소방업무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너질 것도 자명하다. 노후된 소방 차량과 장비로 인해 각종 사고 현장에서 피해가 발생한다면 국민

은 정부의 소방 업무에 대해 신뢰하기 어렵다. 그로 인한 질타와 책임은 소방 당국의 몫이 될 것이다.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소방 당국이 되려면 정부의 안정적인 소방시설·장비 예산 확보 노력이 뒷받침돼야 할 테다.

정부는 소방안전교부세 투입에 관한 시행령 부칙의 연장과 더불어, 소방청의 예산을 확충해야 한다. 소방공무원은 국민의 안전을 수호한다는 사명감 하나로 불 속에 뛰어들다. 그들의 희생이 결코 당연하지 않기에 정부는 소방공무원을 보호할 소방 장비 및 시설 확충에 큰 힘을 쏟아야 한다. 지금도 어디에선가 국민을 지키기 위한 희생이 잇따르고 있다는 사실을 정부는 잊지 않기를 바란다.

\*공상자 : 공무 중에 부상을 입은 사람

권수연 기자 tndusk03@gmail.com

## ■ 의화정

# SAP 망원경으로 세계를 탐험하자!

독일 학생들에게 "삼성을 아느냐? 무슨 회사지?" 묻는다면, "알고 있다", "반도체, 스마트폰 만드는 회사"라고 답할 것이다. 반대로 한국 학생들에게 SAP에 대해 같은 질문을 한다면, 아마 거의 "모른다"고 답할 것이다.

다소 엉뚱한 문답으로 시작하였는데, 삼성과 SAP는 각 나라에서 시가총액 1위 기업이다. 다만 우리가 SAP를 잘 모르는 것은 SAP가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회사라는 점 때문이다.

SAP는 회사명이고, 글로벌 기업용 소프트웨어 업계 세계 1위 기업이다. 1972년 독일 만하임에서 설립된 후 50년간 비즈니스솔루션 개발 및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세계에서 3,500만 명이 사용하고 있고, 포춘지 선정 글로벌 2,000대 기업의 92%가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대기업들도 SAP를 사용 중이고, 삼성, 현대, GS, 한화 등은 그룹 차원에서 표준 시스템으로 운영 중이다.

이 SAP가 한성대와는 특별한 동행을 하고 있다. 2019년 말 한성대는 SAP 솔루션을 도입하고 전략적인 협력계약을 맺고서 SAP 전문가를 양성 중이다. 트랙교육에서는 컨설팅 실무, SAP 생산/물류, 마이크로디그리(MD)에서는 비즈니스 프로세스, ABAP 프로그래밍을 가르쳐 국제공인자격증 취득과 연관 회

사로의 취업을 연계하고 있다.

필자와 SAP의 만남은 1998년 대우경제연구소 시절로 거슬러간다. 또래인 30대 초반 연구원들이 퇴근 후 금쪽같은 시간(160시간)을 할애하고 연봉의 절반을 써가며 공부하러 다녔다. SAP를 배우고자 한 것이다. 그때 필자는 여러 이유로 실행하지 못했다. 외환위기와 대우사태 이후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펼쳐가는지는 생생히 목격할 수 있었다.

이랬던 SAP를 대학에서 정규수업으로 가르치고 자격증까지 연계 한다는 소식에 솔깃했다. 가까이 필자부터 자격증을 취득하여 학생교육에 참여하고 있다. 국내 대기업이나 외국계 컨설팅 회사로의 취업소식을 전해주는 교육생들을 마주하면 기쁨 뿐이다. 한편 타 대학 경영학도인 지인의 딸이 자신도 수강할 수 있는지 문의해 왔으나, 계약상 한성대생과 동일한 혜택은 줄 수 없어 안타까웠다.

취업 문이 좁은 2024년의 현실이지만, 한성대생에게는 취업을 넘어, SAP 생태계가 펼쳐진 새로운 세상으로 향하는 문이 열려있다. 뜻을 품고 SAP를 망원경삼아 함께 항해에 나서기만 하면 된다. 오늘도 세계 속에 한성인의 이름이 크게 새겨질 날을 꿈꾼다.

백성준(사회과학부) 교수

## ■ 낙산에 올라

최근 들어 우리는 챗GPT(이하 GPT)와 같은 AI와 함께하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다.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AI라는 존재는 영화 속과 같은, 우리의 상상 속에서만 이뤄지는 존재라고 여겨왔다. 그러나, 실제로 GPT가 상용화되면서 우리는 모르는 것을 GPT에 물어보고, 글을 써 달라고도 하며, 바랍직하지 않은 경우지만 과제를 해 달라고 부탁하는 경우도 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GPT가 세상을 바꾼 서비스라고 극찬하면서, 이제는 AI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학교 교육 내에서도 이러한 AI 서비스, 소프트웨어 활용을 중요시하며 점차 인공지능을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반영되고 있다. 대표

## AI세대와 재교육

적으로 우리 학교 같은 경우도 교양 이수 체계가 바뀌면서 'AI와 SW 기초' 수업이 신설되고, Micro Degree 중 'AI 활용' 과정이 만들어진 경우를 볼 수 있다.

전반적으로 이러한 교육과정이 확대 운영되면서 현재세대들은 굉장히 인공지능에 익숙한 세대로 자라날 것이다. 마치 인터넷이 만들어지고, 이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면 서 자란 세대들처럼 말이다. 그러나 문제는 기존 세대들에 대한 재교육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 우리 사회를 보면, 디지털 기기를 잘 사용하는 젊은 세대들과 달리, 고령 세대의 경우에는 이러한 디지털 기기가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래서 각종 뉴스에서도 키오스크를 사용하지 못해 주문을 못하고 나온 고령층에 대한 문제를

다룬 경우를 많이 찾을 수 있다.

나는 이러한 상황이 곧 지금 젊은 세대들에게도 찾아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공학 계열 학생들의 경우에는 GPT나 AI 관련 기술들을 많이 사용해 보고, 이를 공부해 보는 기회가 비교적 많지만, 인문 계열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러한 AI 서비스를 아예 접해 보지 못하거나,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빈번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우리 교육 현장에서는 현재 학생들에게 AI 활용 교육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AI가 익숙하지 않은 인문 계열, AI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를 알려 줄 수 있는 재교육 형식의 프로그램도 만들어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최준서(인문 3)

## 기자사령

퇴 부장기자 신지원(인문 4)

〈한성대신문〉은 교수님의 동정을 받고 있습니다. 지면에 실을 동정이 있으면 한성대신문사(내선 4186)로 문의바랍니다.

# 한성대신문

1976년 12월 15일 창간

www.hansungnews.com

제56기 수습기자 모집



## 한성의 오늘을 기록하라

한성대신문사에서 제56기 수습기자를 모집합니다

### 모집대상

- 본교 재학생(학번/전공/성별/주·야간 무관)
- 4학기 이상 활동 가능자 우대

### 주요활동

- 아이템회의
- 취재원 컨택
- 인터뷰 및 사진·영상 촬영
- 레이아웃·인포그래픽 디자인
- 초고 작성 및 퇴고
- 교정 및 조판
- 배부 및 기사 업로드
- 카드뉴스·숏폼 제작 및 업로드
- 평가회의

### 지원방법

- 교내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지원서 다운로드 및 작성 후 이메일(hansungnews@gmail.com)로 제출

### 활동지원

- 학기당 비교과 포인트 100pt 지급
- 원고료 및 활동비(장학금) 지급
- 정기자 진급 시 명함 및 기자증 발급
- 개인 사무실 책상 및 PC 제공
- 사물함·복합기 등 무료 사용
- 교내·외 기자교육 프로그램 지원
- 일간지 및 주간지 제공
- 퇴임 시 활동인증서 발급
- 편집국장 진급 시 총장공로상 추천

### 모집기간

3월 10일(일) 23시 59분까지

### 문의사항

- 한성대신문사 02)760-4186
- 카카오톡채널 @hansungnews
- 인스타그램 @hansungnews

한성대신문